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

2021, 신축(辛丑) 흰 소 새해가 시작되었다. 소는 초식 동물로서...

소는 일 년에 한 번씩 평균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아 번식한다. 농업이 기계화 되면서 농사일에 소가 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며 농촌에서는 규모가 큰 축사를 지어 소를 낙농업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 때문에 해마다 하는 타종행사를 하지 않았고, 새해 일출을 보러 가는 것도...

규제했다. 새해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적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계획과 다짐을 요청하는 날이 새해 첫날이다.

신축년 국가 예산은 558조 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국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하는 새해가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올해 4월 7일은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하며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어렵게 탄생한 공수처...

가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우리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하느님께 소원을 이루어 주도록 간구했다. 새해에는 코로나 19가 물러나고, 일상이 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남북이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모두의 기도 관심이다.

시작하는 마음은 새 마음이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과 희망을 품고 있는 긍정적 마음이다. 새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된다. 사람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제가 다르겠지만, 공통되는 것은 첫째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

늘의 나 위치를 만들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함이고 둘째는 내가 나에게 하는 다짐의 기도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꼭 이루겠다는 나의 다짐기도이다. 다음은 내가 하는 일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움을 주시라는 간곡한 간구의 기도이다. 따라서 한 해의 시작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일 년의 365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느님께서 주셨다. 이 시간을 가차와 바꿀 수 있게 투자해야 한다.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데 1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가 일 년의 과제이다. 해야 할 일의 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원칙에 의해, 어떻게 시간 투자를 실천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실천 가능한 한해의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무계획적인 여행을 바라는 일 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시라고 기원하고 있는데, 복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한다. 복 받을 일은 안 하면서 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따라서 신축년 새해에 복을 받을 일을 정해야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시간 투자를 해야 복을 받게 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것은 새해 목표를 세우라고 해야 하며, 목표를 세웠으면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내가 세운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며 많은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달리기를 할 때 출발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시각과 위치에서 출발신호를 한다. 일등을 하겠다는 마음이 처음 마음이다. 끝까지 일등을 하겠다는 마음이 변치 않은 사람은 목적달성을 하지만 중간에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변질한 사람은 목적 달성을...

못 하고 도중 포기한다.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잘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이다. 시작할 때의 마음은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어야 한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감도(鳥瞰圖)를 그리는 시각(視覺)으로 앞을 보고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보람의 열매 성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시간은 남이 관리해주지 않는다. 시간을 바르게 내가 쓰지 않으면 무거운 후회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니며 책임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실천해 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새해를 창조의 해 바람직한 변화의 해로 정하고 부정적인 주변 환경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축(辛丑)년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은 소처럼 근면하고 성실 하며나를 질적으로 새사람을 만들어 복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이어야 할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legal, and social welfare.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소방차량 피양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최근 화재·구조·구급 현장 출동 중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현장 도착 시간지연으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긴급자동차 중 특히 소방차는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서 특례를 가지고 통행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소...

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소방기본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특례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 중 도로교통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특례조항은 전용차로 통행, 진로양보의 의무, 도로통행정지명령 불복,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발생 시 계속운행, 고속도로 갓길운행, 고속도로 진입 및 통행 시 우선순위 부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몇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소방차 끼어들기, 심지어 길 막음 등으로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소중한 골든타임을 도로상에서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를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소...

방차량 피양 의무를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량 피양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국민 스스로가 자각하고 이를 지키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양보의 미덕이 곧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강명원/화순소방서현장지휘단장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